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5)

이 정업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깨끗케 하는 정결의 능력이 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히 9:22) 예수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요한일서 1:7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깨끗케 하는 정결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케 하는 정결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라고 말씀하신다. 죄를 회개하면 고백한 죄만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신다.

그러므로 깨끗케 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게다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라고 하였다. 회개로 그치지 말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예수님의 깨끗케 하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 9:14)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피의 깨끗케 하는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피 뿌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히 9:13)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가? 피를 뿌림으로 된다는 것이다.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어린양의 피가 담긴 그릇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하셨다(출 12:22).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뿌려진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 주의할 것은 피를 뿌릴 때에만 죽음을 모면한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뿌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19-22)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뿌리면 피 뿌림을 받은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벧전 1:2)이라고 말하며, 피 뿌림에 대하여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1-22)고 하였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였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뿌리시는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예수님의 보혈을 어디에 뿌리는가?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뿌린다. 이렇게 예수님의 뿌린 피는 우리의 마

음과 양심을 깨끗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 부림을 적용하여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보혈을 누가 어떻게 부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려주셔야 하지만, 마치 내가 대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정결케 하는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부정한 것들에게 부리면 된다. 더러운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병든 부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깨끗케 될지어다!” 그러면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겠는가!